

예술과 성경

(프란시스 A. 웨퍼 / 조병수 역 / 성광문화사 / 1981)

김석용

1. 서론

예술은 늘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기독교적 예술로의 접근에 있어서 문학이나 음악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미술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함을 부인할 수 없다. 평자(評者)도 미술에 관계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마음에 와 닿는 실체적인 것이다. 이는 교회에서 미술의 필요성이나 관심이 적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교리적인 면, 특히 십계명 중 제2계명의 문자적 해석에 기인한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는 미술에 적극성을 띠지 않으며 회화나 조각을 멀리함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은 미술을 하나님의 은사로서 긍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술품들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란시스 A.셰퍼 박사의 글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예술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정확하게 그리고 폭 넓게 다루고 있어서 크리스찬 예술가 및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며 성경이 말하는 예술 세계와 전통적 신앙의 견해를 비교 검토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예술적 안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책이라 생각된다.

2 본서의 내용

이 책은 크게 두 장으로 나누어진다. 제1장은 성경에 나타난 예술을 다루고 제2장에서는 예술에 대한 셰퍼 박사의 나름대로의 견해를 몇 가지 말해 주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예술과 성막, 성전 그리고 세속적인 예술과 예수께서 사용하신 예술품과 그외 일반적인 시와 음악과 극, 춤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예술과 천국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예술품과 세계관과의 관계, 평상적인 정의와 문장법, 예술과 신성함, 예술품의 네 가지 평가, 예술은 어떠한 형태의 메세지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또한 변화하는 양식 및 현대 예술의 형태와 기독교의 메세지,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예술의 주제 및 예술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등을 다루고 있다.

본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1장의 '성경에 나타난 예술'에서는 인간의 온전성,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주권 및 학문과 예

술과 문화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주권 개념이 예술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권은 당연히 예술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예술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십계명 제2계명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무슨 형상 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 20:4~5)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예술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새기지 말며 너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레 26:1)에서 성경은 구상(具象) 예술품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명백히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되어질 수 있으므로 제2계명은 예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특히 예술품을 하나님 대신 경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즉 예술품을 경배하는 것은 잘못이나 예술품을 만드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성막은 거의 모든 형태의 조형예술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막의 재료와 모형, 기구들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요 최고의 예술가이심을 강조한다. 또한 지성소에 있는 그룹을 설명하면서(출 25:18) 그룹은 환조로 표현된 조형 예술이며 이러한 천사들을 나타내는 상(像)이 일 년에 단 한 번, 단 한 명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령에 의해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밖에 위치하고 있는 등대(출 25:31~33)의 자연, 꽃, 꽃송이 및 자연적인 미를 언급하면서 예배 장소의 중앙

인 성막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것을 묘사하면서(출 28:33~34)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의복에 자연물의 표현들을 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운반하게 됨을 상기시킨다. 이상의 몇몇 예들을 통해 세워는 계명이 예술품 창작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론에 대한 확실한 반증을 제시한다.

세워는 성전도 성막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식양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대상 28:11~12) 하며 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여 그리어 나로 알게 하셨다'(대상 28:19)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건물의 식양을 보여주는 그림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전 안에 있는 예술품들이 실용적 의미도 없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예술적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솔로몬이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대하 3:6)라는 구절에서 전을 보석으로 화려하게 했다는 것을 본다. 보석은 실용적이 아니며 실용적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것이다. 또한 성전 앞에 새겨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대하 3:15~17)도 건축학적인 중요성이나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또한 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들과(대하 4:3~4) 꽃과 석류의 조각품들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예배 장소의 중심부에 들어섰다. 또한 바다는 평면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아름답게 하기 위해 백합화 형상으로 새겨졌다. 성전의 내외소 사면 벽에도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왕상 6:29) 아로새겼다. 그룹(천사)과 종려와 핀 꽃들을 표현함으로써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조형 예술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쉼퍼는 정금으로 입힌 보좌 양편에 있는 두 사자와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에 늘어선 열 두 마리 사자들을 상기시키면서(왕상 10:18~20) 비종교적 예술, 즉 세속적인 예술의 아름다움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예수께서 직접 인용하신 예술품의 예도 있다.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증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뱀뱀의 예술품이(민 21:9)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지적했다. 비록 히스기아왕 시대에(왕하 18:4)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향함으로 인해 부숴 버렸지만 그것이 예술품이라서 파괴해 버렸던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만들었기에 부숴 버린 것을 상기시킨다. 이로써 구상 예술의 잘못은 그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예술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쉼퍼는 또한 구상(具像)예술 외에 시와 음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에서 사용하며, 아름다움을 위해 제금과 비파와 수금 등의 악기들의 사용과 더불어 기술적인 탁월함의 노력, 즉 예술적 의지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극에 있어서도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모양의 간단한 극을 인용하면서(겔 4:1~3) 본래 나쁜 것이 아님을 말한다. 춤에 있어서도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 치고 춤추는 것(출 15:20)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놓을 때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추던 것을(삼하 6:14~16)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고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비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비난을 받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노래가 천국에서도 불려지는 것을 말하면서(계 15:2~3) 예술적 아름다움의 영속성을 강조한다.

제2장에서는 예술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을 말한다. 그 중에서 특별

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언급하면,

1) 예술품으로서의 예술

예술품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므로 창조는 가치를 지닌다(창 1:1, 요 1:1,3).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며 사랑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질 뿐 아니라 창조할 능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예술품은 창조물로서 가치를 가진다. 특히 세워지는 예술 작품과 관계해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인간도 모두 창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어서 말씀으로 무(無)에서 창조하실 수 있고 인간은 유한하기에 이미 창조되어진 것으로부터 창조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에는 창조의 규모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이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함은 곧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창조한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창조가 다 위대한 예술은 아니며 타락으로 인해 나빠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창조력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다.

2) 예술품의 평가에 있어서 4가지 기준

첫째는 기술적인 우수성이다. 기술적인 우수성을 예술품의 한 국면으로 인정함으로 테크닉 그 자체로서 예술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타당성이다. 타당성이란 예술가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세계관에 진실한가 하는 것이며 금전 관계 및 애호가를 위한 예술을 한다면 그의 작품은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기준은 세계관을 반영시키는 문제이다. 기독교인의 예술작품에 표현되는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 제시되어야 하며 기독교 예술가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비평과 무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워지는 예술적인 표현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예술적 표현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을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비평해 보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한다. 네 번째 기준은 예술가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방법을 잘 적용시켰느냐에 있다고 한다. 위대한 예술작품에는 형식과 내용 사이에 상호 관계가 있다. 위대한 예술은 창작에 사용되는 방법을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관에 잘 적용 시킴을 말하고 있다.

3) 변화하는 양식

예술의 양식은 변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예술이라면 그 형태는 변할 것이며, 예술의 형태와 언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지리적 위치와 문화로부터 오는 차이점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켄퍼는 기독교 예술에 관해 세 가지 일이 강조되어야 함을 말한다. 첫째는 오늘날의 기독교 예술은 20세기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독교 예술이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점이다. 인디언이라면 인디언적이어야 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기독교 예술 작품의 주제는 반드시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 예술가라면 20세기의 예술형태 테두리 안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그 나라와 동 시대를 반영해야 하며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여지는 세계의 본질을 표현해야 한다.

4) 기독교 예술의 주제

기독교 예술은 결코 종교적인 예술, 즉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술가에게 하나님의 창조 내에서 일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어 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예술가는 종교적인 주제에 집중해야 할 필요는 없다. 기독교인은 그 상상이 별 세계 저 너머까지 이를 수 있으며 상상이나 추상을 두려워 해서도 안

된다. 이는 예술가가 성경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 안에 가지는 자유라고 말한다.

5) 예술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새퍼는 예술품에 대한 견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을 제안하면서 어떠한 예술품도 그리스도인의 생활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가라고 불리우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타락하고 절망한 세상 가운데 있는 '진리'이며 '미'라고 한다.

3. 결론

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첫째로, '성경은 예술에 대해 무엇이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성경의 주된 주제는 구원의 역사이나, 거기에는 예술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 성경은 예술이 어떻게 오용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술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은 예술을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제2계명에서도 예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경배되거나 우상화 되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하나님은 예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 것을 지시하시며(출 28:2,40)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건축가이자 최고의 예술가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술을 성경의 외곽(out side)으로 몰아내려는 경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크리스찬 예술가라면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크리스찬 예술가라고 해서 종교적인 주제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 성막이나 성전에도 종교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소나 사자의 형상, 복숭아, 석류, 백합화, 종려와 꽃 형상들이 수 없이 나온다. 비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성막이나 성전에 이용되기도 했으며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예술가는 성령의 인도 하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술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예술 작품이나 애호가들이나 관객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들을 타락시키는 일은 염려해야 할 것이며 미학적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하되 자신의 작품이 담고 있는 메세지와 그 영향력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예술에 있어서 기독교적 양식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양식(Style)과 메세지(Message)는 조심스럽게 구분되어야 하지만 양식 자체가 불경하다든가 경건한 양식은 없다. 새로운 메세지를 말하기 위해 새로운 양식이 생겨남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양식은 그 예술가의 지성, 감성, 의지 및 미적 감각을 포함하지만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일률적인 보편성보다는 오히려 개성과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예술도 개인적, 민족적 특성에 따라 개성이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적 기독교 예술의 과제와 사명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한국적 기독교 예술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